



盛況이룬 첫 韓·美共同委員會

韓美科學技術協力 本格化

—11월 13일~16일, 4個主題에 대한 Work Shop도—

16名의 韓·美科學界 碩學들이 參加한 第一次 韓·美科學技術協力 常設共同委員會와 Work Shop이 지난 13일 부터 16일 까지 4일간 科學技術處 상황실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科學技術界가 당면하고 있는 重要한 問題를 놓고 매년 意見과 情報를 나눌 이 共同委員會는 당초 73년 2월 崔亨燮 科技處 長官 訪美時에 美國 國立科學 아카데미(NAS) 총재인 「힌들러」 博士와 韓·美間의 科學技術 協력이 必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韓·美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常設한 데서 비롯되어 그 첫 모임을 韓國에서 갖게 된 것.

同委員會의 構成 「멤버」는 總16명으로 韓國側 代表는 共同委員會 議長인 崔相業 西江大 副總長을 비롯한 9명, 美國側은 Franklin A Long 博士를 議長으로 하는 美國 國立科學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의 會員 7명이다.

이들은 모두 大學·研究所 등의 學識 높고 影響力 있는 各界의 權威者들로서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 Dr. Brewster C. Denny
(Washington 大學校 公共行政大學院長·政治學)
- Dr. George R. Herbert
(Research Triangle研究所長·電氣工學)
- Dr Deger Revelle
(Harvard大學校 人口研究所長·海洋學)
- Mr. John G. Hurley
(美國立科學院 國際科學技術局補佐官·生物學)
- Dr. Philip N. Powers
(퍼듀大學校 「연료공학센터」 所長·核工學)
- Dr. M. Grant Gross
(美國립과학재단 환경국 해양과장)
- Dr. Norman. J. Wilimovsky
(British Columbia 大學 教授 魚類學)

◇◇첫 共同委員會 召集 및 Work Shop 開催◇◇

同委員會는 韓國의 科學技術을 획기적으로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科學技術研究財團과 研究學園 都市를 적극적으로 強力하게 推進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合意하고 16일 下午 幕을 내렸으나 또한 韓國의 科學技術研究投資가 매년 減少一路에 있음을 우려 앞으로는 增額시킬 것을 政府에 建議키로 意見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共同委員會 멤버들과 政府 研究機關, 學界, 產業界의 專門家들 多數가 參席하여 4개 topic을 中心으로 主題 및 分題 發表와 그에 따른 討論을 벌이고 意見을 交換하기 위해 개최했던 Work Shop은 14일부터 始作, 16일 下午에 성공리에 끝을 맺었다.

이번 Work Shop의 主題는

- i) 全國民의 科學化 運動
- ii) 國家에 너지 研究開發 政策
- iii) 海洋資源 開發
- iv) 國家開發에의 大學參與

◇◇兩國側 代表◇◇

韓 國

- 議長; 崔相業 博士 (西江大學校 副總長·化學)
- 委員; 金熙喆 博士 (서울大學校 工科大學長·機械工學)
- 朴達祚 博士 (韓國科學院長·化學)
- 安世熙 博士 (延世大學校 大學院長·物理)
- 尹容九 博士 (韓國原子力研究所長·物理化學)
- 李漢彬 博士 (崇田大學校 總長·行政學)
- 全相根 氏 (科學技術處 綜合企劃室長·化學)
- 崔鍾洙 博士 (商工部 工業振興廳長·構造力學)
- 韓相準 博士 (韓國科學技術研究所長·化學)

美 國

交替議長; Dr. Franklin A. Long
(Cornell 大學校 特別教授·物理化學)

이었는데 共同委員에서 合意된 事項과 Work Shop에서 提議된 重要意見 및 結論을 具體的으로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科學技術研究財團, 研究學園都市強力히 推進해야◇◇

16日 하오의 最終會議에서 兩國멤버들이 4日間の 워크샵 과정에서 제출된 많은 意見과 제의를 마지막으로 討議 정리한 結果, 다음 두가지 事項이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推進事項이어야 한다는 結論에 도달했다. 즉 하나는 現在 文敎部와 科學技術處가 共同으로 推進하고 있는 韓國科學技術研究財團(案)을 조속히 그리고 강력히 推進하여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단설립의 필요성은 작년초 미국 과학 아카데미 정책 자문단이 내한 했을때 강력히 건의된 바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곧 마스터 계획이 확정되어 74년부터 忠南大德郡 約 700萬坪 敷地에 建設될 研究學園都市를 該역시 조속히 그리고 강력히 推進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가지 계획을 제대로 推進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實效를 거두게 하려면 韓國의 科學研究投資費가 너무나 빈약하며 GNP 또는 政府의 總예산에 對한 비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點에서 앞으로 그 額數와 비용을 대폭증가 시켜야된다고 정부에 건의하자는데 意見을 모았다. 全國民의 科學運動은 以上의 問題들을 強力하게 推進하면서 그 지원을 위한 배경이 되는 事業으로서 효율있게 展開시켜야 될것이라고 意見이 모아지기도 했다.

第2次 會議은 내년에 미국서 열기로 合意했으나 時日과 場所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科學技術 研究財團

基礎科學이나 基礎研究의 發展은 새로운 技術開發의 土臺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 基礎科學과 基礎研究를 發展시키고 推進시키는데 있어서 中樞의인 역할을 맡아야 할 大學의 活動이 빈약한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研究環境도 不備할 뿐만아니라 연구시설과 研究費도 不足하고 우수연구원과 교수도 부족하며 敎課內容, 敎育方法도 不實하다. 大學을 主軸으로 하여 基礎研究能力을 향상 촉진시키고 大學의 研究活動을 지원하며 大學과 研究機關의 基礎研究活動을 國家의要求에 부응할수 있게 誘導·操作하고 신속성 있는 연구관리와 연구환경의 조성으로 國家全體 研究活動에 對한 조직적인 支援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미국 NSF, (國立科學財團) 캐나다의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國立科學研究委員會) 특히 半官半民형태의 독일 연구협회(DFG) 등과 같은 형태의 財團의 設立이 시급하다.

科學技術處와 文敎部가 共同으로 科學技術研究財團의 설립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財源은 政府出捐金, 外援, 寄附金으로 하고 設立形態는 特殊財團法人으로 하는등 科學技術研究財團은 지금 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운영기금은 7억원 科學技術基金을 전입하고 운영비는 基金益金으로 하는등 유동적이지만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있다.

이번 共同委員會의 美國側 멤버들은 交贊議長인 롱박사를 위

시하여 건원이 이 科學技術研究財團設立에 관심을 갖고 한국 멤버들에 대해 질문을 연발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리하여 共同委員會 최종회의에서 한국의 科學技術發展을 위해서는 조속히 그리고 강력히 推進해야 할것이라고, 合意된 것이다. 앞으로 이 財團을 통해 國內산업계 뿐 아니라 해외의 정부 또는 민간기구로 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 됐다.

研究學園都市

74년부터 忠南大德郡內 700萬坪 林野地를 다듬어 建設될 研究學園都市에 對해서는 야심적이고 유니크한 계획이라고 격찬을 받기도 했다. 특히 81年을 目標로 推進되고 있는 重化學工業 育成計劃을 技術的 側面에서 원활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船舶研究所, 電子技術研究所등 5大戰略工業研究所를 그곳에 한데 모아 建設할 것이라는데 對해서는 效果의이며 生産의인 아이디어라고 찬동을 받기도 했다.

특히 美國의 퍼듀大學校 에너지工學센터 소장 Philip N. Powers 박사 같은 사람은 세계의 여러 科學 town을 알지만 이처럼 유니크하고 적합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열을 올려 말했다.

研究學園都市의 研究機關에서 技術革新의 推進力이 나오지 않으면 重化學工業은 제대로 育成되지 않을것이라고 까지 지적하는 미국 멤버가 있었다.

이번 共同委員會의 최종회의에서도 본 研究學園都市의 적극적인 推進이 거듭 강조된 끝에 결론적인 합의사항으로 매듭을 보게 됐다.

共同委員會에서 자주 學論되고 지적된 사항은 韓國의 科學技術研究投資가 額數에서 너무나 적다는 것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의 유명한 未來學者「허만·칸」박사도 내한하여 科學技術을 개발 도입하기 위하여 70年代 中半까지 政府의 研究投資를 GNP의 1%에 80年代까지는 GNP의 1.8%에 이르도록 늘려야 한다고 제의했는데 이번 共同委員會에서는 특히 미국측 멤버들이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共同委員會의건으로 정부에 과학기술 연구 투자의 대폭증액을 建議하고자 한 것이다.

어떤 멤버는 우리나라의 科學技術研究投資의 GNP 및 政府總예산에 對한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그리고 고도 重化學工業의 育成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科學技術의 획기적인 發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추궁하기도 했다.

